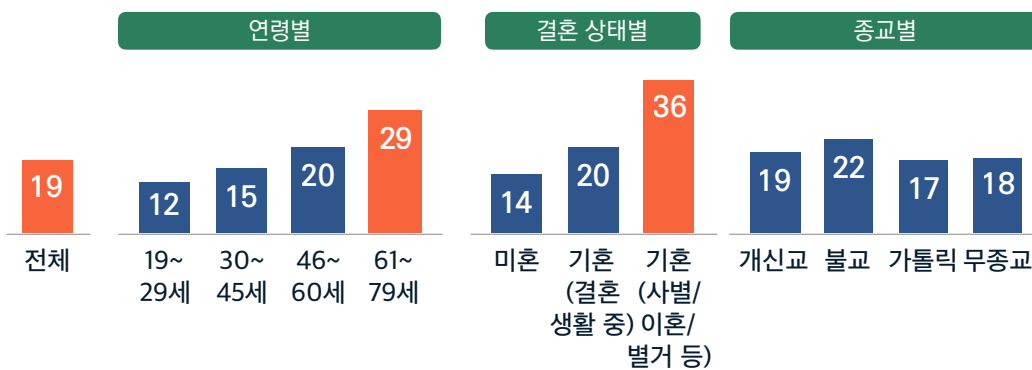


2 한국인, 5명 중 1명 '종종 소외감을 느낀다'

- 2019년 말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'2019년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' 결과, 우리 국민의 19%, 즉 5명 중 1명 꼴로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-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은 고연령일수록 높고, 미혼보다는 기혼이 높는데, 특히 '사별/이혼/별거 기혼층'(36%)이 미혼층(14%)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
- 종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[그림] '종종 소외감을 느낀다'에 '그렇다' 비율**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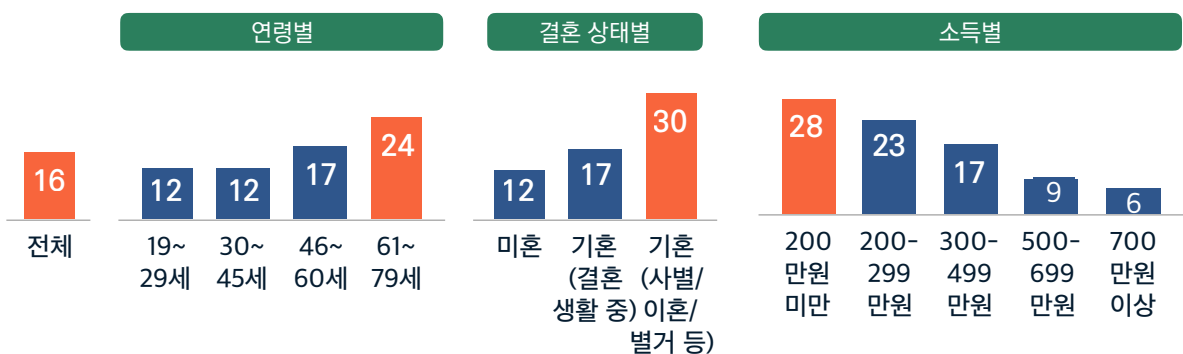


*문화체육관광부/한국갤럽, '2019년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', 2019.12.18, (전국 만 19~79세 5,100명, 가구 방문 면접 조사, 2019.8~9월).
 **4점 척도 항목으로 '그렇다'(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) 비율임

● 한국인, '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' 16%

- '우리 국민의 16% 정도가 '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낀다'고 응답해, 6명 중 1명 꼴로 평소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앞에서의 소외감 느끼는 경우와 비슷하게 고연령일수록 많고, 미혼보다 기혼이, 기혼자 중에는 '사별/이혼/별거 기혼층'이 미혼층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음

[그림] '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'에 '그렇다' 비율** (%)



*문화체육관광부/한국갤럽, '2019년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', 2019.12.18, (전국 만 19~79세 5,100명, 가구 방문 면접 조사, 2019.8~9월).
 **4점 척도 항목으로 '그렇다'(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) 비율임